

<전북미술임용 수석합격 수기/ 김운유>

저는 초수부터 계속 위상미술로 공부했고, 재수로 이번 2020임용시험에서 전북지역 수석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수때는 충남지역으로 시험을 쳤었는데...1차시험 교육학12점 전공50.67로 62.67점 받아서 1차합격은 했으나, 2차 시험성적이 너무 낮은 63.29점이 나와서 최종탈락 했습니다.

재수때는 전북지역(소신지원)으로 시험을 쳤고,
1차시험 교육학18.67점 전공55점으로 73.67점
2차시험 95.14점으로 총점 168.81점을 받아, 합격컷 점수보다 12점 높게 합격하였습니다.

1.공부방법 소개: 집 공부

코로나의 여파가 가라앉지않아 집 공부를 선택하실 많은 선생님들께 제 집공부 경험을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신 지방 본가에서 공부하느라 임용공부는 2년동안 오로지 집공부로 제방에서 눈뜨고 일어나서 잠들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임용공부하기 1년 전부터 목디스크가 생기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임용공부할 때 이부분 때문에 독서실이나 다른곳에서 공부하는게 저한테 힘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목을 숙이지 않으려고 각도 조절되는 스탠워크 책상을 사서 공부하다보니 이걸 들고 다른곳을 갈 수 없어서 집에서만 공부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집공부는 이동시간이 따로 없어 정말 편하고, 공부하다 배고파지면 먹고싶을 때 먹을 수 있고, 잠깐씩 머리식힐 수도 있고, 공부하는 흐름이 왔다갔다 하느라 끊기지 않아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장점이 정말 많아요. 진심이예요.

집공부를 할 때 좋은 공부 방법은 '소리'를 적극활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쯤이면 각 영역별로 회독수를 늘려 복습하고 그 내용을 완벽히 인출하는 공부를 하실 시기일꺼 같아요. 이때 저는 백지말하기랑, 백지타이핑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저는 목디스크가 때문에 어깨를 많이쓰거나 목을 많이 숙이는데 싫어서 백지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때면 백지말하기로 공부한 부분을 말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예 방에 화이트보드를 사다 부착해놓고 보드마카를 사용하여 키워드/키 문장을 쓰고 나머지는 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인출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지만, 내가 알고있는 것을 다른사람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정도로 설명이 됐다 싶으면 제 머릿속에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더라구요. 대신 말이 막히거나 어렵듯이 알고있는 것은 설명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또한 암기할때도 그냥 보고 쓰면서 외울때도 있지만, 말하면서 하면 시각뿐 아니라 청각적인 효과 때문에 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면서 화이트보드를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5만원 정도 주고 혼자쓰기 좋은 사이즈를 사다가 방 벽면에 걸고 썼는데, 교육과정 내용체계도 쪽 서술해보기 좋고 영역별 주요 내용을 쓰면서 공부하기 좋았어요.

또한 백지 타이핑도 비슷한데, 인출할 내용을 타이핑으로 쳐보는거예요. 타이핑은 쓰는 것 보다 빨리할 수있기 때문에 교육학등의 내용을 인출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제 방에서 하는거니깐 타이핑 소리가 크더라도, 말하는 소리가 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집은 저혼자만 있는게 아니여서 생활소음은 들릴수가 있지만, 그런거보다 더 크게 ASMR도 틀어놓고 공부할 수도 있고, 공부하다 스트레스받으면 크게 노래도 틀어놓고 머리식힐수도 있으니 저만을 위한 1인 독서실로 활용하면 좋은 공부장소가 되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밥을 챙겨먹으면서 공부를하고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절약되고, 밖에 나갔다 집에오면 아무것도 하기싫은 나른함도 느끼지 않을수 있었어요. 대신 집에서 공부하다 바람쐬고 싶으면 드라이브도 하고 산책도 하는 루틴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눈뜨면 바로 공부할 수 있게 책상에 딱 세팅해놓고 자서, 일어나면 주섬주섬챙기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공부그만하고 싶은 그런 시간낭비가 덜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다 짜증나면 거실나가서 정해진 시간만큼 tv도 보고 그랬지만, 엄마가 계시니깐 알아서 너무 오래 안보게되고 적당히 환기되면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2년동안 1차공부 역시 인강으로만 했습니다.

집이 지방이라 직장을 다니자니 시간이 너무 소비될꺼 같아 인강을 선택했고, 익숙해지다보니 저는 인강으로 공부하는게 잘 맞았습니다. 물론 직장으로 들으면 남아서 스터디도 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도 직접 여쭙볼 수 있으니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차피 그럴 상황이 안되니깐 인강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르는부분은 다시듣고 아는 부분은 빠른배속으로 들어가면서 인강의 장점을 저한테 맞춰어요. 인강은 듣는 사람의 능동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시간활용면에서 효율성이 진짜 좋습니다.

2. 단권화 및 서브노트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론서를 단권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초수라면 서브노트를 만드는 법을 모를수도 있고 시간이 모자랄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서를 단권화하는것도 괜찮을꺼 같지만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같은 경우에는 초수,재수 모두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서브노트는 개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잘한 정리를 잘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서브노트는 따로 만들지 않고, 서브노트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제가 만든 서브노트만 가지고 공부하는건 빈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컸어요.

그래서 저는 위상 심화이론책을 단권화 해서 서브노트처럼 썼습니다.

2년동안 심화이론서 주변 여백에 내용을 추가 및 삭제 하면서 공부했어요. 심화이론도 영역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영역별 이론을 단권화를 해서 계속 회독했습니다. 즉 모든 영역을 하나로 단권화해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심화이론서 자체가 중요한 내용 중 더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편집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은 최대한 다 소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회독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것처럼 그냥 심화이론서 여백에 내용 재정리 해서 공부하면서 도판도 하나라도 더 같이 보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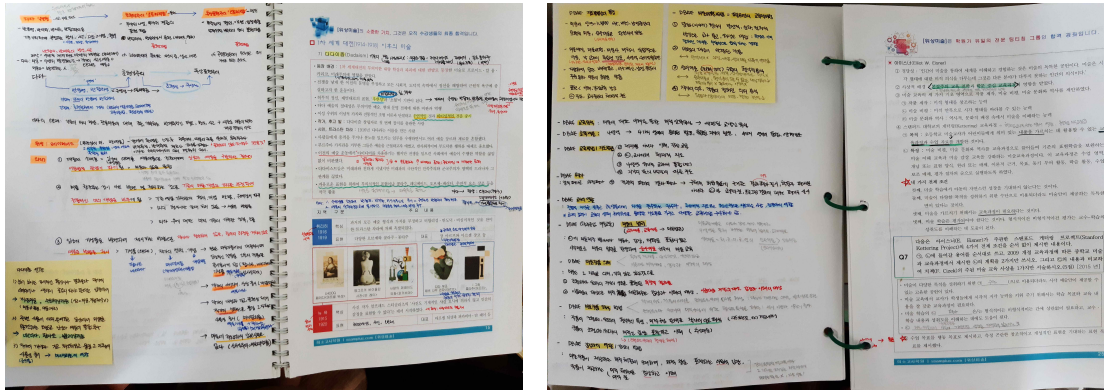
2년 동안 위상미술의 영역별 심화이론서를 계속 회독하면서, 또 2번의 1차합격을 하면서 느낀 것은, 다양한 강사의 이론서를 굳이 하나로 단권화할 필욘 없다는것이고, 하나의 강사 이론서 내용이라도 확실히 내것으로 만드는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초수땐 당연히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게 시급했기 때문에 위상미술만 봤었고, 재수때는 타 강사 이론서 내용도 봤지만 크게 다들게 없는 선에서는 제가 익숙하게 암기할 수 있는 심화이론의 내용을 우선시했습니다. 대신 저는 위상미술의 내용 중 제가 이해는 했어도 암기하기 어려운 말은 좀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강사 이론서의 말로 바꿔서 공부했고, 위상미술에서 덜 중

요하게 다뤘지만 타강사는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있다면 그부분은 심화이론서에 추가로 붙여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완전 막판 11월 즈음에 진짜로 중요한 내용들은 위상미술에서 파일-X파일로 만들어주는데 그것과 함께, 제가 늘 보던 심화이론에서 느낌 오는것들 종이채 뜯어서 하나로 엮어서 시험장 들고 갔어요.

단권화 때문에 너무 고민하거나 막판에 갑자기 만들거나 하실꺼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이론서 내용을 회독하는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3. 스테디: 초수맨 스테디X, 재수맨 짝 스테디

초수맨 워낙 시간이 촉박해서 스테디를 따로 시간내서 하기보다는 이론서의 내용을 내것으로 최대한 소화하려고 했었고, 재수때는 짝스테디를 전화나 밴드로 진행했습니다.

초수때 만났던 같은 대학원 선생님과 밴드활용해서 공부시간확인해주고, 모르는 것을 서로 질문해주면서 특별한 스테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마음 약해질때마다 격려했어요. 저는 스테디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지않았고 대신 제가 공부하는 이론서를 의존했던거 같아요. 이론서의 내용을 최대한 제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시 했었습니다.

간혹 막판까지 방대한 스테디를 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하반기에는 최대한 자신의 순공부시간 동안 영역별 이론서를 회독하며 정확한 인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문제풀이 활용법: 취지파악하기 및 이론서 내용 확인용으로 활용하기

문제풀이는 이론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인출해볼 수 있는 도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만 매몰되서 못풀어본 문제가 있을까봐 전전공공하거나 타 강사들의 모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않았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3장 모두 인쇄해서 틀린부분은 시간차를 두고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했습니다.

하반기로 올수록 몰랐던 내용, 안풀어봤던 문제가 있을까봐 두려워질 수 있는데 정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아는 문제 나올 확률은 참 낮은거 같아요. 따라서 안풀어본 문제를 풀어봤다고 그게 시험장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묻는 말이 무엇인지 취지를 파악하고 내가 알고있는 지식의 선에서 서술하려는 문제해결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문제의 양에 만족했고(그것만 해도 엄청났음), 그 문제를 계속 낫설게 보면서 취지를 파악한 후 관련된 이론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

다. 문제풀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중요한데 자칫 문제를 끊임없이 푸는것에 포인트를 맞추면 오히려 이론이 부실해져서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문제풀이에 몰두하느라 이론을 소홀히하면 절대 안됩니다.

문제는 이론의 내용을 문풀로 확인하는 정도나, 문풀의 답안 내용을 이론과 연계시켜보는게 적당한거 같아요.

대신 문제풀이할 때 채점자의 입장에서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염두해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풀이의 결과물이 답안지이잖아요? 그러니깐 글씨도 알아볼수 있게, 묻는 말의 순서에 맞게, 키워드 위주로 답안을 쓰는법은 문풀할 때 익혀 두셔야해요.

저는 이론서를 공부하고 난 후에 시간이 되면 항상 가지고있는 해당 영역 문제풀이로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론공부가 어느정도 익숙해지면 자꾸 반복하면서 회독하고 인출하는게 지켜워질때가 있을꺼예요, 그때 문제풀이하면서 진짜 알고있는게 맞는지 확인하면서 셀프 자극했어요.

특히 5-6월과 7-8월 문제풀이는 이론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본거 같아요.

그리고 같은 문제도 시간차를 두고 관련 이론내용 공부할 때 한번씩 더 복습해서 풀어보면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5. 하나의 문제풀이만 올인& 타강사 문제풀이 병행

7-8월 영역별과 9-10월 모의고사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할 꺼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시고, 초수라면 한 우물이라도 제대로 파는게 중요해보여요.

물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다른 문풀자료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시간과 수준이 된다면 병행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지만...뭔가 체계적으로 딱딱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느낌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론공부 이거 하나라도 내걸로 완전히 만들자는 마음으로 하면 효과적인 선택과 집중이 되지않을까 합니다.

저의 경우 계속 위상미술로만 공부하다가 재수때는 하반기에 타강사의 문제풀이를 병행했는데, 그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제가 위상 미술의 문제풀이 형식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서 낯선 느낌을 주는 문풀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강사가 낸 문제라도 제가 공부한 이론의 내용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도록 연습하다보면 실제 시험에서도 시험지가 낯설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면에서는 저에게 도움이되었지만, 문풀 자체를 병행했다고 한번 풀어봤던 문제가 더 나오고 그렇지 않았습디다.

6.지역선택과 실기

저는 임용보기 전부터 전북지역을 시험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실제로 초수시험 준비하면서 전북을 마음에 품고 공부했어요. 저희 집이 위치가 충남 끝에 위치한 지역이여서 충남보다 전북이 더 가까웠고 제가 좋아하는 군산이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서 선생님이 되고싶다-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티오발표가 나니깐 마음이 심란해지더라구요.

2019년에 충남이 16명 정도 뽑았고, 전북이 8명정도 뽑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했습니다. 당시엔 초수여서 1차에 대한 부담이 정말 컸던상태라, 왜때문인지 8명안에는 못들어 가도 16명 안에는 들어갈꺼 같았어요. 실기만 생각하면 소모만 보는 전북이 충남보다 수월해보였지만..당장 눈앞에 티오가 2배정도 많이 뽑는 충남이 자꾸 눈에 밟혀서 장고 끝에 충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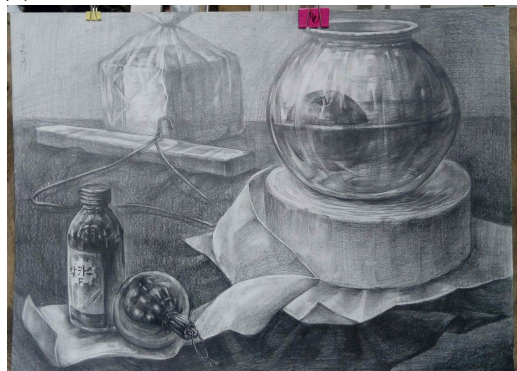
로 지역선택을 했습니다. 4과목에 대한 준비도 없었는데, 당시 저는 제가 실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제 주전공을 잘한다고 나머지도 잘할 것 같은 어설픈 마음도 있었고, 첫 시험인만큼 1차의 벽이 높아보여서 2차는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마음도 컸던거 같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지역선택은 소신선택+자신의 실기 성향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할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 전공자여서 순수미술쪽 경험이 적었는데, 그중에서도 다들 잘하는 조소가 자랑은 대박적으로 안맞았고 실기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끼쳤습니다. 조소 시험에서 미완성같은 마무리를하고 머릿속에 '아..이렇게 고생했는데 실기때문에 1년 더 공부를 할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갔거든요, 진짜 그렇게되었구요.

4가지 과목을 보는 지역은 뛰어난 실기력이 있는것도 좋겠지만, 뛰어나진 않아도 전체적으로 약점은 없어야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전에 경험이 있거나 미리 준비를 해야하면 좋을것 같아요. 반대로 4가지 실기에 자신이 있다면, 1차 점수를 뒤집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수때는 눈 딱감고 늘 가고싶었던 지역이 있는 전북을 선택했는데, 실기도 정말 잘맞아서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즐겁게 2차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제가 1지망으로 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역선택은 장기적으로 자신이 살게 될 곳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강점을 고려하여 진짜 후회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기자료 (올해부터는 인체로 바뀌었네요. 전남지역 쌤들과 같이 3시간에 맞춰 그리다가 나중에 4시간 안에 그리는 식으로 준비했었습니다.)



7. 마인드컨트롤

공부를하다보면 공부 자체보다, 시험 이후의 결과에 대한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초수 때는 초반에는 일도 병행하는 상태였고 대학원 논문쓰라 교생실습하랴 시간이 너무 바빠서 불안할 시간도 없었던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최탈로 끝나자 정말 허무했어요. 최종에서 떨어지면 타격이 생각보다 너무 큼니다. 체력도 시간도 돈도 많이쓰고, 결과 발표 후 몸도 마음도 추스릴 시간도 없으며 희망고문과 절망고문을 동시에 당하다보니 그런거 같아요.. 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공부를 하긴 했는데, 잘 추스린줄 알았던 마음이 한번씩 난리부르스를 쳐서 상반기에는 마음이 힘든적도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최종에 가봤던 경험이 재수 때 도움이 될꺼라고 얘기했지만 당시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했던지라 모든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이 되더라구요. 또다시 기약없는 공부를 해야하는 것 같은 막막함이 뒤따랐고, 초수때 다급한 마음에 잠재울 수 있었던 불안함도 같은

공부를 또다시 하려니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디스크만으로도 벽찬데, 스트레스 때문에 5월달쯤 이석증이 생겨서 이석교정 후에도 시험때까지 쭉 후유증으로 고생하면서 공부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무사히 시험을 치른것에 감사할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다잡는 것이 힘들었고 몸도 아프니 서러웠지만, 나중에는 이왕하는거 나를 힘들게하는 생각이나 마음은 갖지말자는 원칙을 세우고 공부했습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남은시간을 공부하든, 힘들어도 씩씩하고 밝게 공부하든 시간은 똑같이 흐를테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마인드컨트롤을 한 거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최탈의 아픔을 겪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공부하느라 몸이 이곳저곳 안좋은 선생님들도 계실꺼예요. 한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의 공부와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을꺼고, 지금 그 순간에 느끼는 불안함과 지나간 아쉬운 순간을 후회하는 일에 절대 압도당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미 잘해오고 계시고, 쉬지않고 노력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운에 빚겨나갈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꺼라고 믿고 지금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각만 하시길 진심을 담아 바랍니다.

또한 합격한 후 아픈 몸은 진짜 80% 괜찮아지는거 같아요. 저도 1차 시험이 끝나자마자 이석증 증세가 정말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10월달쯤에는 고개만 옆으로 돌려도 머리가 핑-거리고 어지러움이 따라와서 발밑에 물건이 떨어지면 고개 안숙이고 줍고 막 그랬거든요..근데 지금은 뛰어다닙니다. 몸이 안좋은게 제일 안타까운일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마음까지 아프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지켜내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학교 현장에오면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중심이 단단히 잡혀야하거든요. 힘든 시간을 이겨낸 사람이 교사가 되었을 때 많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꺼라 믿어요. 지금 공부하면서 힘든것과는 또 다른 힘든 일들이 학교 현장에는 기다리고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지나가는 방법을 통해 교단에 섰을 때 필요한 단단한 마음을 터득하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남은 하반기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곧 멋진모습으로 교단에 서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